

2017/06

학교흡연예방사업 뉴스레터 Vol. 22



☞ 이달의 정책, Vol. 2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담배규제가 필수적인 이유

담배는 매년 약 600만 명의 사망원인이며,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담배가 야기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건 분야에만 국한되지...



☞ 이달의 연구, Vol. 22

학교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을 돕는 방법

학교는 흡연의 심각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보적 위치에 있음,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소비함(한 달에 약 135시간) 또한,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 학교 소식, Vol. 22

인천부내초, 학교 중심 흡연예방 금연선포식 진행 외

인천부내초등학교는 1일 학교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금연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선포식 후 학생들은 각...



☞ 현장 인터뷰, Vol. 22

경남 거제공업고등학교 강돌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거제공업고등학교 보건교사 강돌순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거제공업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환상의 섬 거제 중심부에서 약간 위쪽의 산등성이에 위치해 늘 신선한...



☞ 학교 알리미, Vol. 22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대화 방법 외

학교는 흡연의 심각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보적 위치에 있음,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소비함(한 달에 약 135시간) 또한,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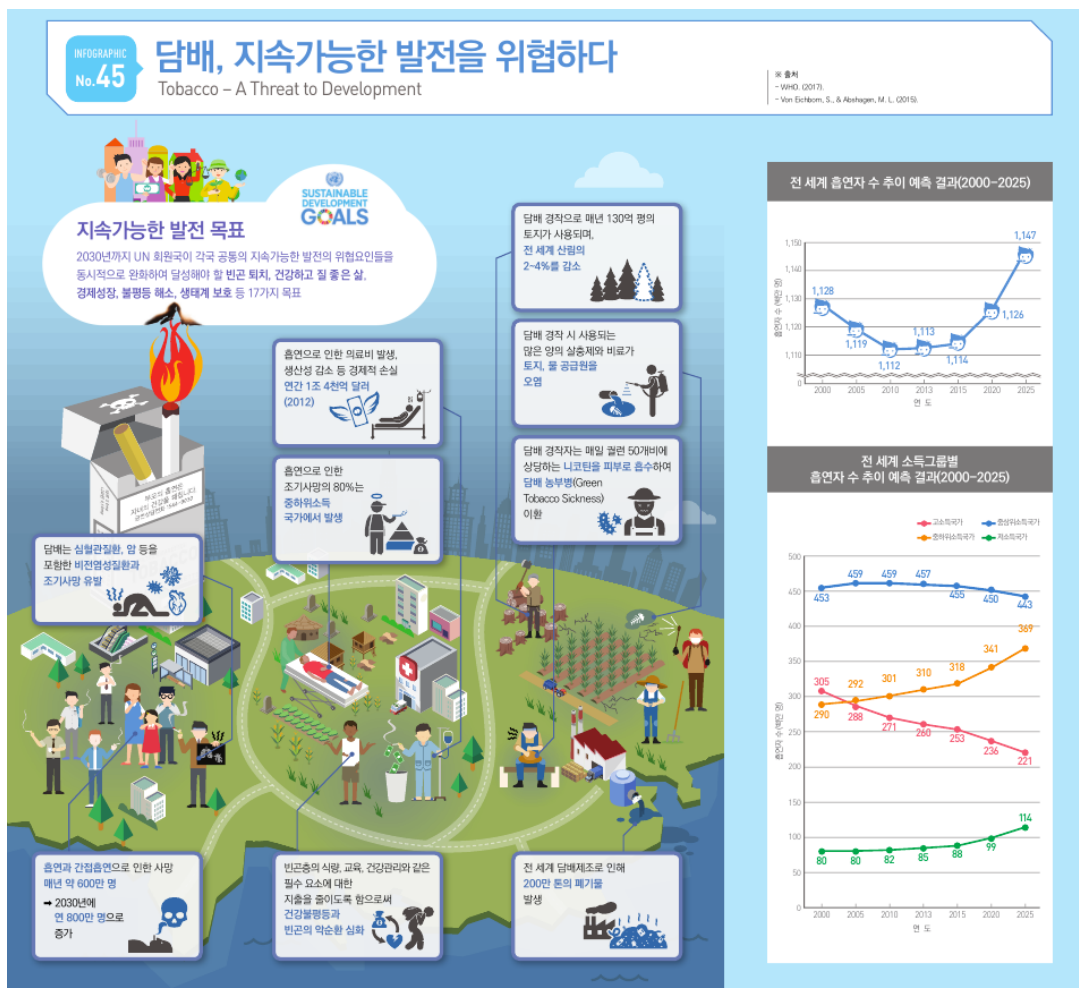
☞ 흡연예방 교육자료, Vol. 22

2017년 1차 금연광고(흡연 피해자의 증언) 외

2017년 국가 금연 캠페인 중 하나인 한국 증언형 캠페인으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TV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담배규제가 필수적인 이유

2017년 6월 | 이달의 정책, Vol. 22



1. 서론

담배는 매년 약 600만 명의 사망원인이며,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담배가 야기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담배는 담뱃잎이 재배되고, 담배제품으로 제조되며, 흡연자에 의해 소비되고 버려지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다방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담배규제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2. 2017년, 담배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다

2017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는 인류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맞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UN회원국들은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며 전 인류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이행계획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 환경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다차원적 위기 상황에 놓인 인류의 비전이자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WHO가 주목한 것은 바로 담배이다. 담배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위협요인이며, 2030년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담배규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WHO가 2017년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주제로 선정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3.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와 담배규제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담배 및 담배규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에 수반되는 이윤 극대화 우선의 경제성장 논리가 인류 문명의 사회·환경적 균형을 파괴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환경이라는 인류 문명의 터전 위에서 인류가 축적해 온 자산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개발 혹은 발전을 ‘경제성장의 관점에 국한’하거나, 반대로 발전을 ‘환경 및 개발 관점에 한정’하여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UN의 주도 하에 전 세계 공동의 번영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사회 발전의 가치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이때 미래의 필요를 고려한 발전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의 3대 축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에 전 세계가 합의를 하였다가 2030 SDGs 채택의 의의이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여 이들 국가들에서의 목표 달성에 주력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규모와 한계를 넘은 것이다. SDGs 17개 목표(Goal)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 169개의 세부이행과제(Targets)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전 지역 모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17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1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2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목표 3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증진 목표 4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목표 5
 식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능력 확보 목표 6	 적정한 가격의 신재생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목표 7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 8
 회복(복원)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목표 9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목표 10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목표 12	 기후변화 대응 목표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14
 육상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폭력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목표 1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 구축 목표 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목표 17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17개의 목표 가운데, 보건 분야 이슈는 목표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목표 3의 세부이행과제 중 담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30년까지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30% 감축(3.4)과 모든 국가에서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이행 강화(3.a)이다. 이 중 WHO FCTC 이행 강화의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로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설정되어 담배 사용의 감소가 SDGs 목표 3의 달성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목표 3(보건)의 세부이행과제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비를 70/10만 이하로 감소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아동의 예방 가능한 죽음을 종식시켜 신생아 사망률을 12/1000 이하로,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을 25/1000 이하로 감소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과 다른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3.4	2030년까지 정신건강 증진과 비전염성질환 예방과 치료로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1/3로 감소
3.5	마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6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과 상해를 1/2 이하로 감소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보장, 생식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3.8	의료비의 재정위험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비용 지불가능한 필수약품 및 백신 접근 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3.9	2030년까지 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기인한 사망과 질병의 감소
3.a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TC)의 이행 강화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약품의 개발과 연구 지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값싼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3.c	개발도상국 의료 인력의 고용, 발전, 훈련, 유지를 위한 보건재정의 확충
3.d	국가적, 국제적 보건 위험 관리, 위험 감소, 조기 경보를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강화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담배

SDGs의 목표 3이 세 가지 주요 가치,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 가운데 사회발전 중에서도 보건 영역에 속하는 목표인 만큼, 주요 건강 위해요인인 담배가 목표 3의 달성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담배는 SDGs의 다른 나머지 가치와 목표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사망하며, 2030년엔 그 수가 연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담배 사용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방 가능한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간접흡연은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게 치명적이다. 유산 및 사산, 유아사망증후군, 호흡기 질환 등은 간접흡연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전 세계의 아동 사망 166,000명의 60%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계된 점은 담배 소비가 야기하는 보건문제가 특히 취약한 인구집단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 쉽게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담배 소비로 인한 보건 문제와 달리,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담배 경작과 관련한 건강폐해이다. 담배는 특성상 매우 민감하고 많은 양분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비료 등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는 토양, 대기, 수질을 오염시켜 담배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또한, 담배는 다른 작물과 달리 자체에 높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유독하다. 담배 경작자는 담뱃잎을 수확하는 동안 피부를 통해 매일 껍질 50개비에 해당하는 니코틴을 흡수하며, 강력한 니코틴 중독의 한 행태로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근육

악화를 일으키는 담배 농부병(Green Tobacco Sickness)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담배 경작지 혹은 담배잎을 공정하는 곳에서 일하는 아동은 니코틴 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해 신체 발달 장애 등 큰 피해를 입는다.

□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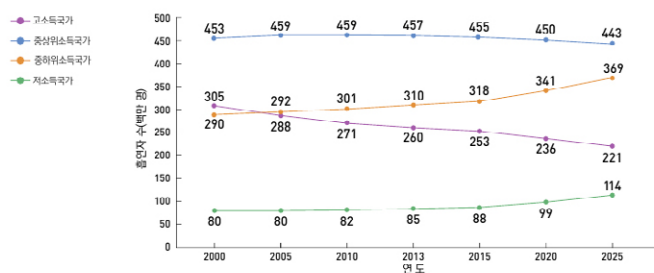
흡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 생산성 감소 등 간접비용을 야기한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총 1조 4,360억 달러, 약 1,58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사실은 세계 각국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일 뿐 아니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담배가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흡연은 담배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늘릴 뿐 아니라 관련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가용소득을 더욱 감소시킨다. 특히, 흡연 기인 질병의 50% 이상은 경제활동 가능 시기인 30~69세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하다. 가용소득의 감소는 식생활, 교육, 의료, 의복에의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200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흡연자 가구들은 담배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생선, 육류, 우유, 계란을 구매하는 비용을 모두 합친 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 있다. 담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인을 위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 수는 2015년 11억 1,400만 명에서 2025년까지 11억 4,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아닌 중하위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흡연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고소득국가와 중상위소득국가들과 달리,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흡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는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이는 담배가 국가 간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가 간 형평성 개선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2000-2025)



전 세계 소득그룹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2000-2025)



※ 출처: U.S. NCI-WHO. (2017).

□ 환경을 위협하는 담배

담배는 유독 가스와 폐기물을 생성한다. 담배 연기로 인한 대기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담뱃갑 및 공초로 인한 폐기물 오염이 발생한다. 담뱃갑 및 공초 폐기물은 극히 느린 속도로 생분해되는 합성 물질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로 만들어지며, 타르, 중금속, 니코틴, 농약 잔류물, 방향족 탄화수소 등 독성물질을 포함한다. 해당 독성물질은 배수 시스템을 통해 물 공급원을 오염시키며,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공초는 도시에 산재한 폐기물의 최대 50%를 차지하며, 유럽의 경우 최대 60%까지 이른다. 또한, 담뱃불이 야기하는 화재로 직접적으로 산림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담배가 경작되는 과정만 해도 매년 총 130억 평에 이르는 토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 2~4%에 이르는 산림을 감소시킨다. 담배 경작은 담배 재배 지역의 생활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담뱃잎 경작 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살충제, 비료 및 화학 물질은 강물을 통해 지하수로 침투한다. 방글라데시의 반다르반(Bandarban) 지구에서는 담배가 마타무후리 강(Matamuhuri River)을 따라 80km 이상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식량 재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은 줄어들고 강에 살고 있던 어류가 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담배제품의 제조 과정 또한 환경오염에 기여한다. 담배는 다양한 종류의 담뱃잎을 혼합하고 잘게 썬 다음 여러 첨가물들을 섞어 1분에 2만 개비의 껍련을 제조하는 자동화된 기기를 거친다. 이 공정 과정에서 액체, 고체 및 가스 등 폐기물이 축적되며, 특히 그중 화학 폐기물은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담배회사만 해도 800톤의 암모니아, 니코틴, 염산 등이 농축된 화학 폐기물을 만들어냈으며, 그중 360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이 2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담배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국내·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와 담배 사용이 우리 사회에 주는 위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담배가 재배되어 제조·가공 및 유통을 거쳐 흡연자에 의해 소비가 된 후 담배공초 등으로 버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담배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 전반에 걸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담배를 규제해야 함은 물론, 담배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보건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담배 규제 조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SDGs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담배의 수요와 공급 감소 전 과정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WHO FCTC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적극적인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출처

월간금연이슈리포트 vol. 45 (May 2017)



링크

<http://www.khealth.or.kr/b/59?&di=26&bi=9812>

학교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을 돕는 방법

2017년 6월 | 이달의 연구, Vol. 22



본 원고는 아래 보고서를 번역하였습니다.

'How schools can help students stay tobacco-free'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7년 1월 /
Laura Bach

□ 학교는 흡연의 심각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보적 위치에 있음,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소비함(한 달에 약 135시간)

○ 또한,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많은 아이들이 흡연을 할지 여부에 대해 압박을 받고, 성인 흡연자의
거의 90%가 18세 또는 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함

□ 2015년 전국 조사에 따르면 8학년 학생의 2.6%, 10학년 학생의 4.9%, 12학년 학생의
10.5%가 지난달에 흡연함

○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흡연에 관한 극히 일부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지만, 흡연을 가장
많이 시도한 시기는 6학년과 7학년(또는 11세에서 13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8학년 학생들의 3.8%가 5학년 말에(10-11세) 첫 담배를 피웠다고 보고함,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18세 미만의 어린이 56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것임

□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서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그 영향에 취약하며, 다년간의 흡연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중독 증상들은 간혹 흡연 시작 후 몇 주 또는 며칠 이내에 나타날 수 있음

○ 흡연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영향과 위험을 초래함

□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10대 흡연자가 몇 년 후에 금연하고자 하더라도 4명 중 3명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흡연을 함

○ 흡연은 불법 약물 사용의 “관문”이 될 수도 있음,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 중독은 종종 다른 약물의 사용보다 먼저 나타나며 약물 및 알코올의 향후 사용에 대한 위험 요소임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청소년 흡연예방 전문가가 권장하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학교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 학교가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담배 반대 신념과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대상 모든 학교 운동장 및 모든 학교 행사 시 흡연 금지함

-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적용·시행되는 학교 금연 정책은 학생의 담배 사용을 감소시킴, 교사, 다른 교직원 및 방문객의 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하고 건설적인 메시지임
- 교내와 모든 행사 시 확고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동반할 때 더욱 효과적임, 1994년 연방 아동보호법에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함

② 포괄적인 흡연 예방 교육 제공

-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학교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어야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장기의 부정적 건강 영향,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영향, 부정적 결과, 동료의 압력, 저항 및 거부 기술, 담배 마케팅과 광고에 관한 미디어 정보 해독력 등을 포함한 담배 사용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
- 또한, 중학교나 초기 고등학교에서만 흡연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흡연예방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받아야 함, 효과적인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학년과 연령에 민감하며, 중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강화해야 함

③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별 교육 제공

- 교사가 흡연예방 커리큘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면 전체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크게 향상됨, 효과적인 교육에는 교과 내용 검토, 숙련된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 활동 모델링 및 교사가 프로그램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④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학부모와 가족 참여

- 가족은 학생들의 담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은 가능한 한 학교의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부모와 가족 구성원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상호적인 과제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흡연예방이라는 주제에 대한 가족 토론을 늘릴 뿐만 아니라 흡연과 관련된 더 좋은 가정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 할 수 있음

⑤ 학생들을 위한 상호적인 담배 없는 프로젝트 제공

- 학교의 담배 없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담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학생은 학교 근처의 상점에서 담배 제품 광고 및 판매 관련 설문 조사를 한 다음 매장 소유자에게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제품 광고를 줄이거나 제거 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쓸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잡지에 담배 제품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편지 쓰기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음
-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한 캠페인 '오늘은 담배꽁초 차는 날(Kick Butts Day)' 활동 가이드는 매년 독립적으로 또는 '오늘은 담배꽁초 차는 날(Kick Butts Day)'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안내함: <http://www.kickbuttsday.org/>

⑥ 흡연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금연 지지

- 학생들의 담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아이들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미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함
- 대부분의 흡연자는 금연을 원함, 2015년에는 고등학교 흡연자의 거의 절반(45.4%)이 금연을 시도했고, 55.4%의 성인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7.4%만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였음
- 학교는 흡연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효과적인 금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학교에서 직접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금연 방법 및 지역사회 기반 금연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 담당자를 학교로 초청할 수도 있음
- 이용 가능한 금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학교는 지역 사회 내 건강, 청소년 및 기타 자원 봉사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음

- 이 때, 학교는 성공적인 금연 방법이 어린이와 성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결과에 더 집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보상을 포함해야 함

⑦ 담배 회사로부터 자금, 교과 과정 또는 기타 자료 지원을 수락하지 않는 확실한 학교 방침 채택

- 담배 회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해롭고 중독성이 심각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사망하거나 금연한 성인 고객을 대신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담배 회사들을 완전히 제한해야 함
- 그러나 주요 담배 회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광범위한 홍보 및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책 표지, 담배 업계에서 후원하는 흡연예방 교과 과정, '청소년 흡연예방' 기금 도서 등)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일부 학교는 흡연예방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담배 회사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담배회사로부터의 수입이나 원조에 대한 대안을 찾거나 개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의 기금 및 자료를 수락하는 것은 항상 학교보다 담배 회사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며, 항상 아이들에게 나쁜 거래임

⑧ 학교의 담배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 평가

- 학교는 금연 정책,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등 구성 요소를 구현할 때 학생의 담배 사용을 줄이는데 성공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이러한 평가는 학교가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결정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음

- 이러한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과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January 12, 2017 / Laura Bach

인천부내초, 학교 중심 흡연예방 금연선포식 진행 외

2017년 6월 | 학교 소식, Vol. 22



5월 2주차 ~ 5월 3주차

□ 이주의 보도

○ 인천부내초, 학교 중심 흡연예방 금연선포식 진행

인천부내초등학교는 1일 학교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금연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선포식 후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평생 금연서약서를 작성했다. 금연서약서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직접 보관한 후 오는 11월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면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다.

금연 퍼포먼스는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들이 금연 피켓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쉬는 시간에 각 교실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다른 학생들이 금연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도움을 줬다.

부내초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심화형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로 선정돼 금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장호원高, ‘흡연예방, 건강증진’ 사제동행마라톤대회 개최

이천 장호원고는 15일 흡연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사제동행마라톤대회 (5km)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사제동행마라톤대회에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주변 5km를 걷거나 달리며 흡연 예방과 금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장호원고는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금연운동을 폭넓게 전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이남순 교장은 “흡연 예방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의 의미로 이번 마라톤대회를 준비했다”며 “지역민과 함께 애향심을 고치시키고, 학생들이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학교: 금연 선포식, 흡연예방 케이크 만들기,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골든벨, 흡연예방마라톤대회 실시, 흡연 예방 인형극 등 실시
- 보건소: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체험 부스 운영, 금연심화학교 대상 MOU 체결, 흡연예방 체험 이동관 운영, 금연달리기 행사, 금연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실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금연실천 홍보부스 운영, 흡연예방 캠페인, 학교흡연예방 학교장 연수, 흡연예방 협의체 등 실시

2017.5.7. 경북일보 (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금연실천 홍보부스 운영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렬)은 지난 5일 지역행사인 제95회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는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지역사회주민,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2017.5.8. 국제뉴스 (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폭력-흡연예방 '캠페인' 전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홍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홍성교육지원청 직원과 홍주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폭력예방 및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5.8. 기호일보 (보건소)

양평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양평군보건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학생 흡연의 건강상 문제점인 성장·발육 저하, 각종 질병 발생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설명과 효과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동기부여 방법 등이다.

2017.5.8. 기호일보 (기본형)

인천부내초, 학교 중심 흡연예방 금연선포식 진행

인천부내초등학교 1일 학교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금연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선포식 후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평생 금연서약서를 작성했다. 금연서약서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직접 보관 후 오는 11월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면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다.



2017.5.8. 경상매일신문 (기본형)

'호기심·유혹에도 담배는 NO'

창포초등학교(교장 전병희)는 지난 1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선포식 및 흡연예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금연선포식에서 호기심과 유혹에도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흡연예방 서약을 하고 대형 담배 모형 절단 퍼포먼스를 펼쳤다.



2017.5.8. 국제뉴스 (기본형)

영덕강구초, 금연선포식 병행한 화합과 축제의 장

영덕군 강구초등학교는 최근 운동장에서 ‘2017 강구 어울림 체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기를 마치고 전교학생회장과 학생들의 선서를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금연선포식”과 “담배모형 부러뜨리기 퍼포먼스”등을 병행했다.



2017.5.8. 아시아뉴스통신 (심화형)

청도중앙초, 흡연예방 가족사랑 케이크만들기

경북 청도중앙초등학교(교장 민은희)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가족사랑 케이크 만들기를 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심화형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생크림을 이용해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마시멜로와 슈가시럽을 이용해 케이크 위에 흡연예방과 관련 있는 메시지를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7.5.9. 경북일보 (기본형)

상주외서초, ‘흡연·음주’ 예방 교육 실시다.

상주시 외서초등학교(교장 장인숙)는 지난 8일 교내 종합실에서 ‘흡연 예방 교육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017.5.10. 중도일보 (기본형)

태안고, 2017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태안고등학교(교장 윤희송)는 지난 8일 오전 등교시간에 태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흡연예방 캠페인은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목표로 비흡연 학생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 촉구를 일깨우고 흡연 학생들에게는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 및 학생들은 ‘모두에게 금연권고 국민건강 회복하자’, ‘흡연 예방이 나를 소중히 하는 시작’이라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홍보활동을 가졌다.

2017.5.10. 환경일보 (기본형)

예천군, 초·중 대상 흡연예방 도전 골든벨 실시

예천군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흡연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신규 흡연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예방 도전 골든벨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기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실시한 「도전 퀴즈! 금연 골든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학교 내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7.5.10. 경북도민일보 (기본형)

“우리 건강 우리가 지켜요”

청도중앙초등학교는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심화형 운영 사항 중 하나로 학교의 흡연 예방 및 금연활동을 널리 알려 학생 스스로가 흡연예방의 주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2017.5.10. 중도일보 (기본형)

경기 고양 덕양구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 적극 지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8일 흡연예방 실천 중점학교인 관내 행신중학교와 연계해 등교하는 학생 85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연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으며 각종 금연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고 행신중학교 학생들이 주도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7.5.10. 브레이크뉴스 (교육청)

대전교육청, 흡연예방...학생자살예방 학교장 연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0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초·중·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흡연예방 및 학생자살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가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뮤지컬공연, 개그맨 초청 골든벨 행사 등 다양한 흡연예방사업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그 중 32개교는 심화형으로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5.11. 경상매일신문 (보건소)

‘구름과자는 암 덩어리를 만드는 독약’

상주시보건소(소장 전부엽)는 지난 8일 함창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총 4개의 부스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금연체험 교육으로 ‘구름과자는 암 덩어리를 만드는 독약’, ‘1,2,3차 흡연 간접흡연’, ‘흡연 NO, 금연 YES’, ‘평생금연결단’의 주제로 금연나무 만들기, 금연 퀴즈, 가족에게 금연엽서쓰기 등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5.12. 무등일보 (기본형)

‘나를 사랑한다면, 금연!’ 나주 금전초, 금연 선포식

나주시 금전초등학교(교장 소순희)는 2017년 흡연예방교육 심화학교로 지정되어 11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나주 보건소와 함께 학부모와 지역민 대상 니코틴 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프로그램 등록 시 니코틴 패치 증정, 금연상담도 진행했다.

2017.5.12. 국제뉴스 (기본형)

연천노곡초, 흡연예방 연극관람

연천노곡초등학교에서는 12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예방교육은 연천군청 주관해 극단 ‘인향’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교생 60명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관람했다.



2017.5.12. 국제뉴스 (기본형)

강경산양초,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은 아름답다!

강경산양초등학교는 지난 11일 11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예방 선포식을 해솔관에서 실시했다. 폐활량 측정, 금연저금통 만들기, 금연다짐 쓰기, 보고 느끼는 금연체험교육을 통해 한 번 더 금연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2017.5.15. 경상매일신문 (기본형)

영양 일월초, 흡연예방 홍보부스 운영

영양 일월초등학교(교장 공한예)는 지역축제인 산나물축제행사기간에 흡연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금연홍보, 흡연예방, 담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생활실천을 촉구했다.



2017.5.15. KNS뉴스통신 (기본형)

용인시, 장애인특수학교서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12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강남학교를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해 금연선언문을 낭독하고 모형담배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7.5.15. 아주경제 (기본형)

“흡연예방, 오감으로 체험해요!”

부강초등학교(교장 민방식, 이하 부강초)는 지난 12일 부강초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은 부스별 전시자료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활량과 시야의 변화, 각종 질병 발생을 이해하고 흡연의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배웠다.



2017.5.15. 대전투데이 (기본형)

청양청남초, 담배는 안돼요!

청남초등학교(교장 이택현)는 지난 12일 명덕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국제절제협회 문시영 강사의 진행으로 흡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7.5.15. 충북일보 (기본형)

충주금릉초, 흡연예방 개그쇼 공연 관람

충주금릉초(교장 한미자)는 15일 학교 강당에서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흡연예방 개그쇼' 공연 관람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생활 속 이야기를 재미있는 개그와 접목된 역할극을 통해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17.5.15. 아시아투데이 (보건소)

상주보건소, 담배 연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MOU 체결

경북 상주시보건소가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 시보건소는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심화학교로 지정된 중모초등학교와 지난 12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5.15. new1뉴스 (보건소)

김포시보건소,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이동교육관 운영

김포시보건소는 청소년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가상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가상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금주관, 금연관, 영양비만관 등의 부스를 학교 체육관 또는 강당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7.5.16. 경기일보 (기본형)

이천장호원高, '흡연예방, 건강증진' 사제동행마라톤대회 개최

이천 장호원고는 15일 흡연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사제동행마라톤대회 (5km)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사제동행마라톤대회에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주변 5km를 걷거나 달리며 흡연 예방과 금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7.5.16. 국제뉴스 (보건소)

영주시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앞장서

영주시보건소는 흡연 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앞장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한 흡연예방법과 폐해, 간접흡연 대처방법, 금연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과 더불어 술에 대한 폐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2017.5.16. 중부매일 (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실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은 16일 송남초등학교에서 학교, 경찰서, 아산시청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안전한 등굣길(교통 캠페인)과 연계하여 학교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홍보하였고, 흡연예방 배너, 깃발, 어깨띠로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시각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실시했다.

2017.5.16. 경남신문 (기본형)

창원대암고, 스승의 날 대암산 등반 행사

창원대암고등학교(교장 이길수)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선포식과 함께 대암산 등반행사를 하며 사제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17.5.16. 뉴스웨이 (보건소)

장성군보건소, 어린이 금연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제3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장성군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금연 포스터 공모전’의 우수작들이 가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흡연이 주는 심각한 피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5.17. 아주경제 (보건소)

광주시 금연 달리기 행사 개최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보건소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2017 온 가족이 함께해요! 금연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식전·식후 공연 및 기념 캠페인, 금연선언문 낭독, 금연·건강관련 체험부스 운영, 5km 금연달리기, 흡연예방 금연퍼포먼스, 금연공모전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2017.5.17. 경남도민일보 (기본형)

통영벽방초, 흡연 예방 인형극·골든벨 행사

통영벽방초등학교(교장 서영우)는 16일 흡연예방 인형극 관람과 흡연 예방을 위한 골든벨 행사를 했다.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인형극에 이어 5~6학년을 대상으로 질병을 퀴즈로 알아보는 흡연 예방 상식 퀴즈 골든벨도 했다.



2017.5.17. 광주매일신문 (교육청)

고흥교육청, 찾아가는 흡연예방 캠페인

고흥교육지원청은 올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일환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학교, 건강한 우리지역 만들기’란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관련 리플렛과 홍보용 필기도구세트를 교육공동체에게 증정하면서 금연홍보를 펼쳤다.

2017.5.17. 경북매일 (기본형)

경주유림초, 6학년 대상 흡연예방 마술공연 실시

경주 유림초등학교는 최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흡연예방을 위한 마술공연과 골든벨을 실시했다.



2017.5.17. KNS뉴스통신 (기본형)

천안쌍용고, 금연 선포식 및 결의다짐 실시

천안쌍용고는 17일 유관순체육관에서 전교생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금연 선포식 및 결의다짐’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천안 서북구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금연, 절주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기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금연캠페인을 실시

2017.5.18. 경인일보 (보건소)

광주보건소 금연달리기 행사

광주시 보건소(소장 윤인숙)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오는 20일 청석공원에서 금연 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담배 없는 세상을 꿈꾸다’란 주제로 개최될 이번 행사는 청소년 흡연 예방과 가족 간 화합과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5.18. 중도일보 (심화형)

태안중, 흡연예방교육 심화형 학교로 다양한 활동 펼쳐

태안중학교(교장 노찬호)는 2017년 충남교육청에서 선정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사업운영학교(심화형)로 흡연예방 캠페인 전개 및 UCC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태안중은 흡연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등굣길에 학생회가 주관으로 학생회와 학생안전부 교사, 금연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함께 교문 앞에서 흡연예방 캠페인을 주 1회 전개하며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다.



2017.5.18. 아시아투데이 (보건소)

오산시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흡연예방공연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해 지난 16~6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관내 6개 초등학교 3~6학년생 21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뮤지컬 및 개그'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17.5.18. 국제뉴스 (기본형)

영동구룡초, '흡연하면 안돼요'

충북 영동 구룡초등학교는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동군보건소가 주관한 흡연예방 인형극을 실시했다.

흡연예방 인형극은 직접 흡연의 위험함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했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7.5.20. 국제뉴스 (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흡연예방 협의체 학교주변 담배판매업소 계도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성순)은 5월 18일(목) 학교 흡연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흡연예방 심화형 학교 담당자가 모여 흡연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흡연예방 사업 및 금연실천 캠페인 등의 계획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행사 이후 담당자들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담배판매 업소를 찾아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 금지를 부탁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5월 4주차 ~ 6월 1주차

□ 이주의 보도

○ 친구야! 금연하고 꿈을 펼쳐 보자

공주영명고등학교(교장 이기서)는 지난 2일 학생과 공주시 보건소, 공주대학교 금연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 흡연 학생이 흡연 학생에게 전하는 한 마디 코너와 의료기관, 음식점, 학교 등 금연시설에 금연자석을 붙이는 금연구역 바로알기, 포토월에서 금연 다짐하며 사진 찍기, 금연탈 인형 체험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큰 인기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찬영 학생(3)은 “아직도 흡연하는 친구들은 금연캠페인 활동을 계기로 금연을 결심했으면 좋겠으며 저에게 흡연 예방을 위한 좋은 교육이었다. 금연의 시작은 결심부터이다. 꼭 금연에 성공해서 우리 함께 꿈을 펼쳐 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 함안초, 금연실천 홍보대사 캠페인 전개

함안초등학교(교장 임채순)는 ‘금연, 가족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흡연예방, 금연실천 주간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함안초에 따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 학예행사를 갖고 금연 티를 주문하여 전교생이 입고 금연실천 결의식을 실천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금연교육은 학생, 학부모, 지역민 교육으로 이어 흡연의 심각성과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마련됐다.

□ 보도자료

- 학교: 금연 선포식, 흡연 부스 체험교육 등 실시
- 보건소: 금연 골든벨, 금연 캠페인, 흡연 예방 연극, 흡연예방 업무협약식 등 실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담당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2017.5.21. 울산매일 (기본형)

“평생 금연!”…북지부-북구청, 달천고서 ‘금연예방 캠페인

지난 19일 울산 북구 달천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교 보건복지부와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금연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평생 금연’이라는 단어로 사행시를 지어 달천고 학생들의 흡연 예방 각오 등을 써보고, ‘금연 약속 트리’에 지장을 찍어 다짐했다. 또한 간이 폐활량 측정기를 통해 폐활량 측정을 해보기도 했다.

2017.5.21. 충청매일 (교육지원청)

홍성 흡연예방 담당교사 연수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최근 관내 초·중·고 흡연예방 담당교사 43명을 대상으로 학교 금연 문화를 확산을 위해 금산산업고등학교 황선향 교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2017.5.21. 경남도민신문 (보건소)

거제계룡중, ‘금연 도전! 골든벨’ 개최

거제시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흡연의 폐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18일 계룡중학교 강당에서 금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2017.5.22. 경상매일신문 (교육지원청)

영양교육청, 흡연예방·금연실천 홍보 캠페인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상호)은 지난 18일 보건소, 경찰서, 영양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5.23. 중부일보 (기본형)

수원칠보고, 흡연예방 ‘금연 선포식’ 가져

수원 칠보고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연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한 ‘금연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금연 퀴즈대회, 흡연예방 동영상 시청, 금연서약서 작성 등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이 실시됐다.



2017.5.23. 뉴스타운 (보건소)

평택시 송탄보건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합동 금연캠페인 전개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는 19일 은혜고등학교 정문에서 하교시간에 맞추어 은혜고등학교 관계자와 금연지도원 등 25명이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흡연 시도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2017.5.24. 대전투데이 (심화형)

청파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흡연예방 체험부스 교육 실시

청파초등학교(교장 이민철)는 지난 22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2교시 1~3학년, 3교시 4~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교직원이 체험하며 배우는 흡연예방 체험부스 교육을 실시했다

2017.5.26. nsp통신 (교육지원청)

청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흡연예방 학부모 연수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영규)은 25일 청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2017 학생 정신건강 및 흡연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예방하고 가족 중 흡연자들의 금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7.5.28. 대전일보 (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금산학생체육관 앞에서 학교폭력 자치위원 및 지원청 직원 30여명이 흡연예방 및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5일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학교폭력과 흡연 근절에 대한 경각심 촉구를 일깨우고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17.5.28. KNS뉴스통신 (보건소)

평택시, 학교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연극 개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는 지난 25일 관내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술·담배 및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연극 '담알약'을 공연했다.

상반기 총 3개 학교에서 약 600명이 관람한 '담알약'은 초등학교학생에게 흡연·음주 및 약물에 대한 폐해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난 다양한 상황극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2017.5.28. 광주매일신문 (보건소)

나주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 행사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나주보건소는 '함성소리'인재교육원심리연수소의 전문 MC 및 강사를



특별 초청해 금연특강, 금연골든벨, 금연전략 세우기 등 학생들이 직접 동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연 참여를 독려했다.

2017.5.28. 대전투데이 (기본형)

당진한정초, 흡연예방 선서식 실시

당진 한정초등학교(교장 성기동)는 지난 26일 한빛관에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흡연예방 선서식을 실시했다.

학생회장의 평생금연 서약서 낭독에 따라 전교생이 함께 복창하며 평생금연을 다짐했으며, 금연 띠와 금연 피켓 구호를 들고 학생들 모두 피켓 구호를 외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5.29. 충남일보 (교육지원청)

태안군, 흡연예방·금연 ‘앞장’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용주)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이하여 흡연예방보건교사 동아리 회원 15명과 태안군보건의료원 15명이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활동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7.5.29. 충청매일 (기본형)

“흡연·음주 안돼요”

청양초등학교는 지난 26일 3~6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예방 부스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흡연예방(금연)교육주간을 운영한다.



2017.5.29. 경상매일신문 (심화형)

울릉중학교 청소년 단체, 흡연예방·금연 캠페인

울릉중학교 청소년단체(RCY, 스카우트)는 최근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열었다.



2017.5.29. 연합뉴스 (교육청)

서울 초중고서 흡연예방 '블루리본'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천345개 학교에서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블루리본 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각 학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결심, 비흡연자의 평생 금연 다짐·서약, 담배꽂초 줍기 등 정화구역 청소, 방과 후 학교 주변 계도, 흡연예방·금연 관련 영상물 상영 등의 행사를 펼친다.



2017.5.29. 충청매일 (교육지원청)

진천교육청, 서천고서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석)은 29일 서천고를 찾아 흡연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30회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2017.5.29. 아주경제 (교육청)

우리 함께 약속해요! 흡연예방

충남도 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9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체육관 앞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흡연예방 페이스페인팅 행사, 흡연예방 및 금연 포토존 운영, 흡연예방 관련 용품 제공 등 흡연예방의 중요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2017.5.29. 충청일보 (기본형)

음성대소초, 금연선포식 열어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초등학교는 29일 금연활동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금연선포식과 캠페인을 전개했다.

금연선포식은 학생 대표의 금연 선서문 낭독, 교장 훈화, 대형담배 자르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어려서부터 흡연의 피해, 금연의 필요성을 깨닫고 평생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17.5.29. 국제뉴스 (보건소)

제주시, 어린이비만·흡연예방 글짓기·포스터대회 시상식 개최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는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제주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지난 5일부터 7일 까지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개최한 ‘제3회 어린이 비만 및 흡연예방 포스터·글짓기 대회’를 심사 한 결과 초등학교 입상자 18명에 대해 27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7.5.31. 경남도민신문 (기본형)

사천축동초, 금연캠페인 실시

사천 축동초등학교(학교장 이순복)는 31일 제3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캠페인 및 자료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5.31. 광주매일신문 (보건소)

함평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함평보건소는 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함평보건소는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를 주제로 함평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함평중학교, 함평고등학교, 함평나비휴게소, 5일 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5.31. 아시아투데이 (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함께 만드는 담배 없는 청정교육 실천

경남 밀양교육지원청은 31일 세종중학교에서 ‘2017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예방교육은 등굣길 캠페인을 마치고, 아침시간을 활용해 Wee센터 직원이 세종중학교 전 학년 교실로 찾아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금연서약서 작성,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2017.5.31. 브릿지경제 (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학생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캠페인 개최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31일 순천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YMCA 등 유관기관과 함께 30여명이 참석하여 금연밴드, 리플릿,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흡연의 심각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렸다.



2017.5.31. 국제뉴스 (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보건소, 영덕중학교 금연캠페인 실시

영덕교육지원청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영덕중학교, 영덕군 보건소와 함께 영덕읍내 일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5.31. KNS뉴스통신 (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학교흡연예방 캠페인 개최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정인상 교육장은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학교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17.5.31. KNS뉴스통신 (보건소)

강진군보건소, 금연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강진군 보건소가 오늘(31일) 강진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금연 캠페인 및 홍보관을 운영했다.

가두캠페인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2017.5.31. 뉴스천지 (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본청 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0일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을 했다.

이번 행사는 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과 본청의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2017.5.31. 뉴시스 (기본형)

‘있는 힘껏 불어요’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금연·금주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이 흡연측정기에 숨을 힘껏 불어넣고 있다.

2017.5.31. 뉴시스 (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토월중에서 흡연예방 캠페인 등

경남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토월중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흡연 예방 통보를 통한 교육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흡연 예방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흡연 예방 지도, 안내 홍보물 배부 등 순으로 이뤄졌다.



2017.5.31. 국제뉴스 (기본형)

광혜원중, ‘흡연을 불허한다’ 행사가져

충북 진천 광혜원중학교는 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금연주간으로 선포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 돼 금연, 흡연예방교육 행사를 갖는다. 올해 금연의 날 행사는 학생자치회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돼 학교주변 담배공초와 쓰레기 줍기 등 지역사회 금연캠페인으로 시작했다.

2017.5.31. 중도일보 (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실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중)은 지난 30일 호수공원 앞에서 서산교육지원청 직원과 서산시관 내 보건교사 동아리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6.1. 불교공뉴스 (기본형)

장야초, 세계 금연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

장야초등학교(교장 김한모)는 5월 31일 오전, 학생들의 등굣길에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의 날과 금연을 홍보하였다.

장야초는 이날 각반의 학급에서 담임교사들에 의해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해 배우고, 금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교생에게 금연을 홍보하는 양말을 배부하여 금연을 거듭 홍보하였다.

2017.6.1. 업코리아 (보건소)

광양시보건소, ‘청소년 금연 연극 공연’으로 흡연 위험성 알려

광양시보건소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두기연극공연단을 초청해 ‘담배는 양돼요’ 주제로 금연연극 공연을 펼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연을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6.1. 중도일보 (기본형)

서야고, 금연캠페인 실시

당진 서야고등학교(교장 김인섭)는 지난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등교시간을 이용해 교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진시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금연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2017.6.1. 국제뉴스 (보건소)

여주시,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홍보캠페인 실시

경기도 여주시보건소는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31일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란 슬로건으로 중앙로 한글시장, 자영농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가두행진 및 금연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6.1. 아시아뉴스통신 (교육지원청)

나주교육청,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팔걷어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소와 연계해 금성중·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나를 아끼는 금연’이라는 주제로 학생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6.1. 인천일보 (보건소)

안산시 단원보건소, 금연캠페인 실시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난달 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안산역사,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란 슬로건으로 단원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코레일 안산역, 금연 자원봉사자, 시니어 클럽 연계 아산지킴이 등 금연에 뜻을 둔 많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2017.6.1. 중도일보 (기본형)

광석초, 흡연 예방 및 금연 체험 교육

광석초등학교(교장 박은종)는 지난달 30일 3~6학년을 대상으로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논산시보건소의 지원으로 금연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의 흡연예방 다짐을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2017.6.1. 경북매일 (기본형)

경산진성초, 미리내 마술극단 초청 흡연예방교육

경산 진성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학교 흡연예방의 날을 맞아 미리내 마술극단을 초청해 흡연예방교육을 했다..

2017.6.1. 경상매일신문 (심화형)

별빛중, ‘담배 NO 평생건강 YES’

영천 별빛중학교는 지난달 31일 ‘제3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시청각실에서 전교생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선포식’을 가졌다.

별빛중학교는 올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흡연예방 교육사업 심화형 학교로 선정돼 이날 선포식을 갖고 전교생과 전체 교직원이 흡연을 예방하며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17.6.1. 국제뉴스 (보건소)

동두천시 보건소, 한국문화영상고와 흡연예방사업 업무 협약

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 31일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금연선포식에 참석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동두천시 보건소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와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찾아가는 금연상담 대상자 지원 및 금연 홍보 활동 상호 지원,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시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6.1. 경인일보 (기본형)

화성영천초,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

화성 영천초등학교(교장 임종덕)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4~6학년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금연선포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영천초등학교의 실내외 전체가 ‘절대금연구역’임을 선포했으며, 학생들은 ‘금연선서’와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예방 의지를 다졌다.



2017.6.1. 대전투데이 (심화형)

태안안면고, 흡연없는 학교 만들기 앞장

태안 안면고(교장 김형근)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 선포식과 함께 금연의 날 행사를 가졌다.

흡연예방으로 사행시를 짓고, 점심시간에는 금연 O, X 퀴즈를 풀고 폐활량을 측정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2017.6.1. 국제뉴스 (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세계의 금연의 날 “흡연예방캠페인”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31일 논산고등학교와 계룡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고등학교, 계룡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



2017.6.2. 대학급식신문 (교육청)

대구동부교육청, 흡연 예방 캠페인 펼쳐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 이하 동부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대구 동성로와 동대구역 일대에서 학부모, 시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교육지원청 직원과 교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교육지원청에서 만든 홍보물을 나눠주며 흡연이 가져오는 문제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



2017.6.2. 강원신문 (보건소)

강릉시보건소, 어린이 흡연예방 ‘손인형극’ 공연

강릉시 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31일(수) 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미취학 어린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흡연예방 손인형극 ‘호랑이 아저씨 금연대작전’을 공연했다.



2017.6.5. 국제뉴스 (심화형)

광석중,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주간 운영

광석중학교는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평생 금연 의지를 다지는 다채로운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석중에서는 등굣길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시작으로, 흡연예방 4행시 짓기, 평생 금연 서약하기, 흡연예방 포스터 전시, 가족 금연밴딩 사진 찍기, 에코필통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017.6.5. 경인일보 (기본형)

양평군 용문고등학교, '세계 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 펼쳐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용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용문고 학생과 교직원은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를 주제로 금연선서 및 서약서 작성에 이어 금연경진대회와 OX퀴즈, 금연 관련 학생작품 전시, CO측정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2017.6.5. 영남일보 (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예천읍 일대서 금연 캠페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춘희)은 최근 '학교흡연예방사업 및 2017 금연주간'을 맞아 예천군보건소와 대창중 학생,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단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천읍 일대에서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의 필요성을 알렸다.



2017.6.6. 대전투데이 (기본형)

친구야! 금연하고 꿈을 펼쳐 보자

공주영명고등학교(교장 이기서)는 지난 2일 학생과 공주시 보건소, 공주대학교 금연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 흡연 학생이 학생에게 전하는 한 마디 코너와 의료기관, 음식점, 학교 등 금연시설에 금연자석을 붙이는 금연구역 바로알기, 금연탈 인형 체험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큰 인기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7.6.6. 중도일보 (기본형)

보령대천초, 담배는 NO NO

대천초등학교(교장 전영배)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흡연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소식지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흡연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풀어보고,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흡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금연을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7.6.6. 제주일보 (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성산고등학교 등 지역 내 4개 중·고등학교 흡연학생 78명을 대상으로 6월 중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청소년 금연교실은 금연풍선 터트리기, 케이크 및 금연담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인 스스로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7.6.6. 아시아뉴스통신 (보건소)

인천시 계양구, 세계금연의 날(5.31.) 기념 금연 캠페인 실시

인천시 계양구보건소(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를 주제로 관내 계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6.7. 국제뉴스 (보건소)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흡연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 전시와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

2017.6.7. 경남도민신문 (기본형)

함안초, 금연실천 홍보대사 캠페인 전개

함안초등학교(교장 임채순)는 ‘금연, 가족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흡연예방, 금연실천 주간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함안초에 따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 학예행사를 갖고 금연 티를 주문하여 전교생이 입고 금연실천 결의식을 실천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6.9. 굿모닝충청 (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금연학교 조성 위한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당진정보고등학교와 합덕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당진시보건소와 합동으로 ‘2017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교 흡연 근절에 대한 학생과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공감 형성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7.6.9. 불교공뉴스 (보건소)

증평군 ‘흡연음주예방 프로그램’ 실시

증평군보건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흡연·음주 예방교육’과 ‘금연또래교실’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4주동안 교육 기자재 활용 교육(흡연 폐모형 및 타르모형 등), CO2 측정 및 PFT(폐기능 검사), 폐기종 환자 고충체험, 금연상담 등을 실시한다.

2017.6.9. 기호일보 (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영동초등생 대상 ‘마술로 알아보는 금연이야기’공연

원교육지원청은 8일 학생중심·현장중심의 흡연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영동초등학교 5~6학년 410명을 대상으로 ‘마술로 알아보는 금연이야기’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공연에서 ‘흡연’의 무서움을 총알에 빔대어 불 마술과 함께 설명해 주고, 흡연과 관련된 상식 퀴즈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흡연의 폐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6.10. 국제뉴스 (기본형)

진천삼수초, ‘흡연은 절대 하지 말아요’

충북 진천삼수초등학교(교장 이정순)는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교육은 금연 선포식, 흡연예방 엽서 쓰기, 부채 만들기, 스크래치북 꾸미기,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사진 공모전 등 학생들의 평생 금연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졌다.



2017.6.10. 국제뉴스 (보건소)

남원보건소, ‘금연! 꿈과 미래를 위한 다짐’

전북 남원시보건소는 청소년들에게 인체에 해로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2일(월)부터 9.13일(수)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530여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찾아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다.



경남 거제공업고등학교 강돌순 선생님

2017년 6월 | 현장 인터뷰, Vol. 22

소속 학교 소개 및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제공업고등학교 보건교사 강돌순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거제공업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환상의 섬 거제 중심부에서 약간 위쪽의 산등성이에 위치해 늘 신선한 공기와 경치가 아름다운 배움터에 460명 전교생과 88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인사 구호이자 학교벽면에서 빛나고 있는 ‘꼭 마이스터가 되겠습니다’를 늘 보고 그 뜻을 새기며 꿈을 함께 심고 있는 **전교생 기숙형 마이스터 학교**입니다.

저는 28년의 보건교사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5년 10개월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현재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석·박사과정에서 익힌 상담심리 전공을 살려 **청소년의 심리 이해 차원으로 접근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흡연예방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흡연이 관련이 깊다는 것과, 금연상담을 통해 생활지도상 흡연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으며, 고등부 보건교과서의 검증위원과 성인권 인정도서 검토위원의 경력으로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과 우울과 자살생각관련 등 보건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열성을 다하고 실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이어 올해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제안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적십자 단체인 RCY, 지덕체를 겸비하는 4H 동아리를 열정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 속에서 함께 뒹굴며 살아온 결과 교감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어 2015년에는 모범공무원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교직기간 동안도 열성을 다해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인성교육에서 앞장서며, 본교의 특수성으로 수업시간에 용접하다가 발생하는 신체의 화상 치료 뿐만 아니라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뿔린 옷까지 꿰매 주고는 있지만, 진정한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조선현장 맞춤형 실습환경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팀티칭과 수준별 교육, 산학겸임교사의 전문교과 코티칭을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및 선박전장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조선기계과 12학급, 조선전기과 6학급으로 2008년 조선분야 한국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유공학교로 거듭난 학교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조선 산업 현장과 동일한 심화 전공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겸임교사 활용을 통한 산업체 현장 맞춤 실무 교육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기본자격증 외 4개 이상 자격증 취득, 명장 멘토 설정, 국가직무능력(NCS) 준비(“나는 명장이다”), 글로벌 마인드 가지기, 창업교육(비즈쿨), 국가직무능력(NCS)준비, 기능사 자격증(“나는 창업자다”), 내신관리, 국가직무능력(NCS)준비, 기능사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정보 및 컴퓨터 활용 자격증(“나는 직장인이다”) 라는 커리어 패스 3단계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닌데 11시까지 교실에 흰하게 켜져 있는 불빛을 볼 때면, 용접할 때 튀는 불꽃만큼 열정적으로 꿈을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의 작업복 차림의 멋있는 모습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사전 건강검진과 면접을 통해 입학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학생은 적은 편이고, 학교생활지도 규칙인 ‘3진 아웃제’에 흡연 항목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흡연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편이나 중학교 때부터 피운 학생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피우게 된 학생들까지 하면 2% 정도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 정기적인 흡연예방교육과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흡연예방사업들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만족스러웠던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동료교사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각자가 만들어 온 것을 나누고 직접 활동하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흡연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몰라서 흡연?, 알면 금연!’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교과서적인 이론 수업이 아닌 **체험형 자료 개발**에 앞장선 결과, ‘발로 움직이는 청소년 맞춤식 활동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2015년)’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2016년).



그리고 학교흡연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직무연수 교재 개발 활동을 통해 여수와 서울 등에서 담당교사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금연분위기 정착 및 효율적 지도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보건교사회 해외 교육봉사활동**으로 ‘베트남에서 사랑을 나누다’에 **동참**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기거하는 곳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나이인데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액션을 통한 활기찬 금연교육과 3차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였는데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사업)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역시 **직접 스스로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게임식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각 반별로 이루어지는데, 20분 정도는 필수 이론과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하고, 20 ~ 30분 정도는 이론을 바탕으로 재정리를 하며 게임식으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윷놀이 규칙과 비슷한데 두 팀으로 나누어 말을 세우고, 나머지 팀원들은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잡히면 처음 출발선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팀원 전원이 “흡연 탈출”이라고 외치면서** 하늘 높이 뛰기를 하며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인생 노래를 개사(고1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담배와 결투하니 기다리라 전해라, 고2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금단증상 중이라 기다리라 전해라, 고3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금연하여 건강하니 걱정 말라 전해라)한 것을 함께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이동한 칸에 있는 미션을 수행해야만 다음으로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친구야, 도와줘!”, “그 자리에 머무르기”, “말 바꾸기” 등 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팀별 단합과 친구간의 활동에 도움**이 되며 전원이 직접 참석할 수 있어 의미반, 활동반 교수기법으로 더욱 활기찬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제안 연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 흡연을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고 만들며 익히는 **체험형 금연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몰라서 흡연? 알면 금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또래 흡연예방교육자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흡연 예방 현수막, 판넬 등을 설치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래 흡연예방교육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면서, 먹고, 배운다!**’ 라는 푸드힐링테라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식을 통해 금연을 치료하고,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동기부여, 자기조절력 및 학습전략 향상의 내용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에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또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 시 학생에게 직접 와닿는 교육내용과 방법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세포, 장기, 조직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유해한 담배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더 큰 손상을 받게 되어 사망률이 20배 이상 높다'는 내용의 사진이나 설명을 진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전달력이 낮은 집단교육을 꺼려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 흡연예방교육 시 제목을 “너희가 담배를 알아?”라는 강력한 주제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내용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담배회사의 전략, 담배의 진실, 간접흡연, 3차 흡연, 흡연자의 불이익 등에 대해 동영상과 ppt자료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장면은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인 키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였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므로 비흡연자는 1년에 평균 4.6cm 성장하는데, 흡연자는 1년에 평균 3cm 성장하게 되므로 결국 1년에 1.6cm 키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약 10년간 흡연 시 키가 약 16cm까지 차이난다는 설명을 듣고는 염려스러운 얼굴로 키 성장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학생이 많았고, 그 때 바로 상담을 하여 금연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체험학습과 연계한 흡연예방 캠페인은 무척 중요한데 **관심이 있거나 책임을 맡은 부서의 일부 참여가 아닌 전교직원과 학생회의 자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복도나 교실 등에서 캠페인과 홍보를 하고, 조회 또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체조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학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엽적인 '교육과 홍보' 정도인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개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 금연지도**를 위해 상담, 흡연 수치 측정, 스트레스 관리, 금단 증상 극복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직원의 솔선수범입니다.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금연이 매우 중요하므로 **흡연하는 교사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교직원이 흡연예방활동의 주체자로 서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흡연예방 교육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제동행 문화체험을 통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극복하도록 돕는 등 주기별 활동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실습 현장 표지석에는 논어 자한편 중 공자님께서 그의 제자 안희에게 남긴 말씀인 “후생가외(後生可畏 : 나중의 태어난 사람을 두려워함이 옳다)”를 새겨두었습니다. 이는 ‘**젊은 후배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워 할만하다.**’ 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되, 제자나 후배들을 아끼고 존경하는 의미도 담겨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격무로 바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예방에 앞장서는 교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대화 방법 외

2017년 6월 | 학교 알리미, Vol. 22



□ 공지사항

○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상반기 실적 입력 안내



내용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상반기 실적 입력 기한을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모든 기본형 및 심화형 학교에서는 실적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17. 7. 10.(월) ~ 7. 21.(금)



방법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nosmk.khealth.or.kr>)에 접속하여 해당 학교 ID로 로그인 한 후 “예산 집행액, 학교 특성, 활동 실적” 등을 실적 입력란에서 직접 체크하여 입력

□ 사업동정

○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 5. 31.(수)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참석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외 유관기관 담당자 등 250여명



주요내용

- 대한민국 금연 정책 및 캠페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금연 유공자 표창과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응원하는 포토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2017년 금연캠페인 광고 ‘흡연 피해자의 증언 - 만성폐쇄성폐질환 편’과 ‘금연지원서비스 편’ 감상
- 음악그룹 ‘놀이터’와 캘리그래피 이산 작가의 퍼포먼스 축하공연 진행 등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응원 포토 퍼포먼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 축사〉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캘리그래피 이산 작가의 축하공연〉

□ 사업길잡이

○ 대화의 비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대화 방법(5분 건강대화법 중 일부 발췌)

하루 5분이면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

하루 5분이면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

“하루에 네 학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거나 해?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그것도 모르고 학원이나 빼먹고 다니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런 예는 어떨까?

“너 왜 학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야. 작은 거짓말 한 번이 자꾸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엔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야. 모든 일을 거짓말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아빠 엄마가 너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도 모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거나 하니?”

자녀의 인생까지 들먹이며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이런 잔소리나 설교가 대화일까? 대화는 마주 대하고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고, 대화의 목표는 공명과 소통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중에서 진정한 공명과 소통이 있는 대화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따져 보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종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명과 소통이 있는 대화를 단 5초도 나누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다. 단 5분, 아니 단 5초라도 자녀와 공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의 대화, 양보다 질이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여서 자식들에게 살갑게 다가설 줄 몰랐던 나의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워낙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인데다 아직 어릴 때여서 아버지와 추억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힘이 되는 추억이 하나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와 가졌던 짧은 대화의 추억이다.

할아버지 댁에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할아버지 댁에서 저녁을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아버지가 나와 계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그 반가움이 더 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슬그머니 나가더니 애 마중 갔다 왔어요?”하고 묻자, “아니, 뭐 그냥 바람이나 쉴까 싶어서……”라고 말꼬리를 흐리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른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풍경 속에는 멀리서 와글와글 울어대던 개구리 소리뿐이다. 어쩌면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와 단 한만디도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와 그 짧은 시간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가운데 하나로 추억한다. 아마도 ‘아, 나는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질풍노도의 사춘기, 힘에 부쳤던 고3 시절, 그리고 세상의 술한 유혹에 굴복하고 싶어질 때, 나는 어머니 몰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물론 대화에 있어서 양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 대화의 질이다.

아무리 많은 대화를 주고받더라도 그 대화란 것이 “공부해!”, “지금 당장 안하면 혼난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담배나 피우고 다니고, 너 커서 뭐가 될래?” 등의 협박이나 비난 일색이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차라리 그 시간을 자녀의 마음을 찬찬히 살피는 데 투자하는 것이 낫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라

나도 직장맘에 속하지만 프리랜서여서 조금은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주변에 정시 출퇴근을 하는 직장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부지기수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퇴근하면 그때부터 저녁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는 집을 대충 치워놓고 나면 12시를 훌쩍 넘긴다고 한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는 하는 건지 학원에 보내놔도 성적이 안 오르고, 특목고니 SKY대학이니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남편은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자기 탓만 같다.

남편들은 또 남편대로 할 말이 많다. 자녀가 한창 성장하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이 아버지들에게도 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시기다. 이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만만한 것은 아니다. 집안을 늘 거울처럼 반짝반짝 유지해야 하고, 남편 내조하랴, 아이들 학원 챙기고 운전기사 노릇하랴, 진학정보 챙기랴 여간 바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와중에도 여가가 생기면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본다는 응답이 평일이나 주말 모두 평균 80%나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하루에 5시간 13분의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 여가시간 가운데 자녀를 위해 몇 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텔레비전을 꺼도 좋고, 좀 더 일찍 일어나거나 더 늦게 잠들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하나마나한 잔소리는 대화가 아니다!

오늘 하루,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되돌아보자. 아니, 아침 기상시간 하나만 떠올려보자.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5분만, 엄마 5분만 더.”

“빨리 못 일어나!”

이불을 획 벗겨버린 엄마는 아이가 일어나겠거니 하고 나가서 아침을 차린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한 뒤다.

“너 아직 안 일어났지? 엄마한테 혼난다!”

“일어났어.”

아이는 침대에 걸터앉아 ‘일어났다’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엄마가 잠잠해지자 옆으로 픽 쓰러지며 다시 잠에 빠져든다. 식탁에 밥을 차려 놔으니 혼자 먹겠지 하는 생각에 소파에 누워 있던 엄마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일어난다. 자녀의 방이 잠잠하다. 방으로 달려가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자녀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린다.

“왜 때려!”

“시끄러워. 빨리 못 일어나? 8시야. 8시!”

“뭐, 8시? 아이 참, 오늘 또 지각이네. 왜 안 깨웠어?”

“안 깨우기는. 실컷 깨워놔더니 다시 잔 녀석이 누군데.”

“아이, 몰라.”

아이는 옷을 꿰어 입고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달려 나간다. 그런 아이들의 뒤통수에 대고 엄마가 소리를 지른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이 상황에서 엄마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일어나라’, ‘조금만 더 자자’, ‘왜 안 깨웠느냐’등등 말이 분명 오가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화란 기본적으로 ‘공명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아침 기상시간의 이 대화는 공명은 말할 것도 없고 소통도 없었다. 우리 현대인은 정작 왜 바쁜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다. 그래서 ‘바쁜 것도 없이 바쁘다’는 말이 생겨났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 나누는 대화라는 것도 늘 그 말이 그 말이다. 일방적인 명령, 하나마나한 잔소리,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말들이 전부다.

“어서 일어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얼른 간식 먹고 학원 가라.”

“너 오늘도 학원 빠지면 혼날 줄 알아.”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외에 오늘 하루 자녀에게 어떤 말을 더 했는지 한번 적어보라.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이 오가는 말, 자녀의 고민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말, 자녀를 성장 발전시키는 말, 자녀와 부모가 웃음과 행복을 나눴던 말 등 공명과 소통, 사랑과 믿음이 있는 대화를 과연 얼마나 나누었는지 직접 점검해 보라.

청소년기 자녀,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너는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양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란다. 네 안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으며, 오만을 부리려는 편협함만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끼는 따뜻한 심장도 함께 들어 있지. 아울러 삶을 외면하려 드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삶에 용감하게 맞서고자 하는 용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단다.”

이것은 조셉 M. 마셜의 《그래도 계속 가라》의 첫머리에 실린 글이다. 변화무쌍한 감정의 굴곡과 2차 성장을 겪어야 하는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자칫 삶을 외면하려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두려움 대신 삶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길 원한다면 우선 자녀의 자아존중감부터 키워줘야 한다.

수많은 연구와 실험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은 대체로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친구도 많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과제에 임한다.

또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한다. 자아존중감이 행복 에너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항상 긍정적이며 밝게 웃는 아이였으면 싶은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를 희망하는가? 담배나 술, 탈선 등 일탈의 유혹을 느낄 때 단호히 그것을 뿌리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내 자녀의 '자아존중감'부터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와 2단계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이며, 4단계는 자기존중의 욕구이다. 그리고 최고 수준인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가리킨다.

매슬로우는 욕구란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으로,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의 자녀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먼저 자아존중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고,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 바로 당신, 부모이다.

‘넌 누굴 닮아서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별 수 있어?’

‘형 좀 닮아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넌 할 수 있어’, ‘오, 멋진데!’,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 중에 누가 더 자아존중감이 높겠는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강요하거나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무게 중심을 바탕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된다.

아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안달한다면, 또 질투심 때문에 자주 화를 낸다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루 5분 대화, 맘만 먹으면 누워서 떡먹기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는 것이다. ‘가족 간의 대화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지난 2005년 4월 1주일간 미국에서 ‘TV 끄기 주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미국 내 760만 명을 비롯해 브라질,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이탈리아, 멕시코 등 10여 개국이 참가했다.

‘캠퍼스의 리틀 아인슈타인’으로 세계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던 쇼 야노의 어머니 진경혜 씨는 쇼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텔레비전은 벽장 안에 두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자 자연히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쇼 야노의 아버지 가쓰라 씨는 퇴근 후 자녀와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끊임없이 묻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우리 집에도 물론 텔레비전이 있다. 하지만 시청하기로 한 약속한 프로그램, 정해진 시간에만 텔레비전을 켜고, 다 보고 나면 바로 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 꺼두기만 해도 대화시간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침 풍경은 북새통이다. 부모들은 출근준비에 바쁘고 애들은 학교 갈 준비로 바쁘다. 부모는 ‘빨리 빨리’를 외치고, 그럴수록 애들은 억장을 부리는 것 같아 결국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게 된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녀를 깨우는 데 투자하라. 물론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 5분을 아침인사 시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딸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방법이 다양하다.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눈은 스스로 뜨지만 딸은 내가 자기 방에 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벌써 13살이나 되었지만 늘 그렇듯이 나와 아침인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인사를 나누는 방법이 다양한데, 어떨 때는 잠이 덜 깬 딸 옆에 살며시 누워서 “잘 잤어?”라고 인사를 하며 꼭 껴안는다. 또 어떤 때는 아기 때 해줬던 것처럼 꺾꺾다리 주물러주고, 어떤 때는 귀에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수도 없이 말해준다. 딸이 잠을 완전히 털어내고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까지.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면 아침 풍경이 평화로워지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빨리 빨리’를 외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작은 기적도 일어난다.

세 번째 방법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또는 부모가 퇴근하고 왔을 때, 5분 동안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옷을 조금 늦게 갈아입으면 어떨고, 저녁 식사가 5분 늦어지면 어떨까? 자녀의 공부할 시간이 5분쯤 줄어든다고 해도 대세이 큰 지장이 없다. 대신 그 시간 동안 자녀의 손을 잡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주면 대화를 나누자. 마른 솜이 물에 폭 젖어들 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명과 소통이 이뤄질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담배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는 5분 건강 대화법>

http://www.khealth.or.kr/b/60?&di=&bf=&bi=8643&page=0&SRCH_TYPE=ALL&SRCH_TEXT=5

2017년 1차 금연광고(흡연 피해자의 증언) 외

2017년 6월 | 흡연예방 교육자료, Vol. 22



□ 2017년 1차 금연광고(흡연 피해자의 증언 - 만성폐쇄성폐질환 편)

2017년 국가 금연 캠페인 중 하나인 한국 증언형 캠페인으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TV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대본

- 결국, 담배를 끊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아뇨. (흡연피해 실제 사례자 허태원씨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투병 중) 폐가 망가져버렸거든요.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세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 자료링크

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dataNo=101&dataGr=1&fileNo=427&postIdx=435&level1Idx=5&level2Idx=101&dataLv=1>

□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주제 영상

2017년 5월 31일에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주제 영상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금연 주요 정책

- 1986년 -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 광고 제한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1997년 - 권련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 2005년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담뱃값 500원 인상,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및 금연 상담전화 전국 실시
- 2007년 - 발암성 경고 문구 표시
- 2012년 -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서울 개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2014년 - 음식점 등 전면 금연
- 2015년 - 담뱃값 2,000원 인상
- 2016년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 2017년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12월 3일)



📎 자료링크

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dataNo=105&dataGr=1&fileNo=431&postIdx=439&level1Idx=5&level2Idx=105&dataLv=1>